



도,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 청렴정책 가동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청렴정책 조정회의에 김관영 도지사가 “전 직원이 청렴을 최우선의 가치로 노력해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성취감을 가지는 한 해를 만들자”고 당부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도-금융기관, 소상공인 회생 지원 ‘맞손’

도, 7개 금융기관-전북신보와 ‘보듬자금 금융지원’ 협약 체결
회생 보듬자금 3천750억원 규모 직·간접지원 예정
대출금리 이차보전도 제공…소상공인 경영안정 기대

전북자치도와 금융기관 등이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 지원에 나선다.

도는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등 7개 금융기관과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참여한 가운데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와 9개 시군은 특례보증 재원을 출연하고, 금융기관은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전북신용보증재단은 특례보증을 제공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듬자금 금융지원 사업’은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와 시군, 금융기관이 협력해 특

직접지원 대상은 ▲경영 애로 기업(최대 7천만원) ▲재단과 첫 거래 기업(최대 1억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최대 2억원)이며, 보증기간은 최대 8년(1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또는 8년 분할상환)이다. 간접지원은 9개 시군에서 시행하는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을 통해 최대 1억 원까지 보증하며, 보증기간은 시군별 협약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적용된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도는 3년간 연 1.0%의 이차보전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군에서도 연 1~3%의 이차보전을 추가로 지원해 대출금리 부담을 한층 더 낮출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저금리 대출을 활용해 경영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협력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도, 공직사회 각종 비리 의혹…‘청렴정책’ 가동

공직 사회, 공정한 공직 문화 조성…경찰 수사 예의주시
제1호 청렴주의보 발령, 간부 모시는 날 등 신고기간 운영

최근 전북지역 공직사회가 각종 비리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공직사회 청렴도를 1등급으로 높이기 위해 세부과제 추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2025년 제1차 청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직사회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실국 간 협업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5년 청렴정책 추진 방향으로 ▲반부패·청렴 인프라 조성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소통과 참여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등 3대 추진전략과 45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3등급을 유지해온 종합청렴도를 1등급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 정책도 추진한다. ‘찾아가는 청렴 소통 간담회’를 확대 운영하고, ‘도민감사관 청렴소통추진단’을 활성화해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또한, 공공재정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업무추진비 및 지방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4~5월 중 ‘청렴서약식’과 ‘제2차 청렴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7월에는 ‘제3차 청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국민권익위원회 제제개선 권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연중 청렴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전주시, 정읍시, 순창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비리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8일 새벽 완

전북자치도, 전북대와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SW중심대학사업단과 협력해 생성형 AI시스템 구축
연간 17억 구독 비용 자체개발 AI 서버비 3억으로 절감

전북자치도가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북대학교와 손잡고 오픈소스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자체 구축한다.

전북자치도는 17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전북대 SW중심대학사업단과 ‘오픈소스 기반 생성형 AI 시스템 자체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생성형 AI 기술을 행정 분야에 도입해 도청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ChatGPT를 전 직원에게 보급할 경우 연간 17억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고 자료 유출 위험도 있어 서버 구입비 3억으로 자

을 통해 모델 간 성능 비교와 추론 엔진 연구,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등 현장 중심의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실제 행정 수요에 기반한 과제를 경험함으로써 학부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협약은 AI를 통한 행정 혁신을 본격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대학의 연구 역량과 현장 중심의 기술이 결합돼 도청 전반에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SW중심대학사업’에 선정돼, AI와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성민 기자

한국도로공사 안전통화 시리즈 | 토끼와 거북이 편

빨리 가기보다 안전하게 쉬어가기

졸음쉼터

졸음은 절대 이길수가 없습니다.
휴게소와 졸음쉼터를 이용하여 졸음을 이겨내세요!

한국도로공사

전북-광주-전남, 호남권 발전 협력 모색

호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상생발전 도모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실무협의회’ 개최…공동 협력과제 논의

전북자치도와 광주광역시, 전남도는 지난 14일 광주광역시 소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상호 협력을 통한 호남 지역 경제를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실무협의회’는 지난해 7월 4일 전북·광주·전남이 합의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공동선언과 우선 추진사업에 대한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기 위해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해 구성·운영되는 조직체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지난해 9월 20일 개최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자리로, 전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장현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산업·경제, 건설·SOC, 문화·관광, 교류·협력 분과별 각 시·도 담당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3개 시·도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타 시·도의 행정통합 동향 등을 공유하고,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공동선언 사항을 효율적으로 전달 및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 구성 및 주요 과업, 예산 부담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2024년 9월 1차 실무협의회를 통해 발굴된 분과별 과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신규 제안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신규 과제에 대해서는 전북이 제안한 ‘서해안 철도(새만금~목포)’, ‘동학정신 선양을 위한 문화공연 교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과 광주가 제안한 ‘광주 방문의 해’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도,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선정 전국 4개 지역 중 군산·고창군 포함…맞춤형 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

전북자치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 공모에서 전국 4개 선정 지역 중 군산시와 고창군이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국비 1억4천8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령층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단지 내 공용 공간을 활용해 돌봄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에서 선정된 군산시와 고창군은 고령자 복지주택 거주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 내 노인 돌봄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주거 안

정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전북자치도가 초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마련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향후 국비 지원을 활용해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주거·돌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김관영 도지사, “흔들림 없는 도정, 민생 최우선” 강조

김 지사,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및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대응 철저 주문

김관영 도지사는 “정치적 이슈에 흔들림 없이 도정 현안을 쟁기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7일 간부회의에서 “헌법 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도정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올림픽 유치, 대관벌 개정, 정부추경 대응 등 도정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고 결과에 따른 상황별 시나리오를 마련, 철저히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올림픽 후보도시 선정이라는 성공적인 분위기를 이어갈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제무대에서 전북의 경쟁력을 입증·홍보하고 국민적인 올림픽 유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림픽 선정이 우리도에 가져올 변화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SOC 조기 확충, 고용 창출, 관광객 유입, 브랜드 가치 향상 등 경제적 효과와 달라질 전북의 위상과 미래상을 적극 홍보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RISE 사업에 대해 “인재 양성에서 취·창업, 정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각 사업 간의 일관성 있는 방향과 통합적인 추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실국, 시군, 대학 등 기관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과 관련해 “익산, 고창, 남원 3개 시군이 계획대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논리와 전략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윤준병 의원, 한국애견협회 방문…제도개선 의견 청취

윤준병 국회의원(정읍 고창)은 지난 16일 서울시 광진구 어린이회관에 위치한 한국애견협회를 방문해 애견전문 인력과 반려동물 훈련·미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한국애견협회와 윤준병 의원의 이번 간담회에는 신규철 회장과 박애경 사무총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윤 의원은 한국애견협회로부터, 사람을 대신해 공공영역에서 봉사해 온 공공야견이 은퇴한 뒤, 정부의 어떠한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취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애견 훈련 등의 업종분류인 ‘동물위탁관리업’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물에만 등록될 수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윤 의원은 “농어업 현장에서 직접 영취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훈련·미용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전북자치도, 37만 평 규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추진

전북자치도가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17일 제9차 전북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하고 익산·남원·고창 등 3개 시군을 포함한 총 37만 평 규모의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안)을 심의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해 1차 지정(전주·익산·정읍·김제, 88만평)에 이어 추가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추가 지정 대상지는 익산(7만 평), 남원(16만 평), 고창(14만 평)으로, 총 14개 기업이 입주 예정이며, 3천200억 규모의 투자 유치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기회발전특구 총 면적은 125만 평으로 확대되며, 첨단소재·부품 및 라이프케어 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 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추가 지정(안)은 전북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되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뿐만 아니라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사업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도 진행됐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도심융합특구를 제외한 3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문화특구)를 중심으로 ‘인력양성-일자리 창출-정주여건 개선’이 선순환하는 정책 모델을 구축해 특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심보균 전북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특구 간 연계가 본격화되고, 기업 유치를 위한 토대가 보다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완주·전주상생협력사업’ 순항

전북자치도는 17일 도청 4층 종합상황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은 양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3차례 협약을 통한 2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협약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22년 11월 협약을 시작한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은 5개 분야 28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천6억 원으로, 주민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함께 협력하고 있다.

상생협력 사업은 먼저 완주와 전주의 지역 간 경계는 허물고 지역은 살리는 완주전주한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완주와 전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로 완주전주한 경제 공동체를 구축한다. 또



완주와 전주의 편리하고 안전한 완주전주한 생활인프라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추진 상황 점검과 현장 행정 등을 통해 상생협력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관리할 계획으로 생활밀착형 사업부터 SOC 등 규모 있는 사업까지 사업의 경종과 관계없이 양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동반성장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상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협약된 사업들을 내실 있게 관리하고, 양 지역 주민 편의와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해 28개 사업이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정상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작년, 올해

농지를 매도하셨나요?

추가로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받아보세요!

QR코드를 통해 공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농업인 요건**

• 약정체결일 기준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 **지급대상농지**

• 3년 이상 소유 중인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비진흥지역 농지

✓ **지원내용**

① 매도(분할지급) 농지매도 대금 + 1ha당 매월 50만원 지급

② 매도(일시지급*) 농지매도 대금 + 1ha당 50만 × 지급기간 × 지급율
*경작허용농지 1,000㎡ 미만일 경우만 가입 가능, 지급 기간별 최대 30% 차감

③ [매도 조건부 임대] 1ha당 매월 40만원 지급 + 농지연금 + 농지임대료
※ ①과 ③의 경우 경작 허용 농지가 1,000㎡ 이상 3,000㎡ 이하의 경우 공익직불금 수령액만큼 차감 후 지원

✓ **지급상한 면적**

• 최대 4ha(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

[매도*] 최대 월 200만원(4ha기준)
* 10년 기준 (분할지급) 240백만원, (일시지급) 168백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최대 월 160만원(4ha기준)
* 10년 기준(분할지급) 192백만원 + 농지연금 + 농지임대료

가입 시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지급

✓ **사업신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 자세한 가입조건, 지급금액 등은 상담 후 확인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ki 한국농어촌공사

fb 농지은행

문의 ☎ 1577-7770

전북자치도, 국가공모사업 양적·질적 동반 성장

최근 3년 연속 국비 1조 확보, 미래 신산업 등 경쟁력 강화

민선 8기, 국가첨단산업 조성 등 대형 사업 유치 성과…이차전자·탄소·모빌리티 등 미래 신산업 공모 다수 선정

전북자치도가 민선 8기 이후 국가공모사업 3년 연속 국비 1조원 이상을 확보해 도정 목표에 부합하는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사업 다수 선정 등 국가 공모사업의 양적·질적 동반 성장을 이뤘다.

민선 8기 전북자치도는 국가첨단산업 조성·글로벌대학30·하이퍼튜브개발 등 대형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2021년 7천억대이던 공모사업 국비확보 규모를 2022년부터 1조원 대로 키웠다. 또한, 도정 핵심분야인 이차전지·탄

소·모빌리티 등 미래신산업(25건, 1조2천90억)과 스마트 농업·바이오 등 생명분야(19건, 1천377억원) 공모사업도 다수 선정돼 관련 산업의 기술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도민경제부흥, 농생명산업수도, 문화·체육·관광산업거점조성, 도민행복·희망교육 등 도정목표에 맞춰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가 경쟁력 있는 지자체 등을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늘

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모사업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 실적을 높이기 위해 준비부터 최종 선정까지 치밀하게 대응했다.

성과의 배경에는 대상 사업 발굴부터 사업 필요성 검증, 응모 및 평가대응까지 각 단계별 대응 지침에 따른 체계적인 준비가 있었다.

또한 매월 도지사 주재로 주요 사업별 진행상황 점검을 통해 부처 대응 논리를 강화했고, 지휘부가 적기 적시에 핵심 관계자를 직접 설득하는 등 전략적

으로 대응했다.

이에 시군 및 지역 국회의원실의 공동 대응 등 전방위적인 지원 또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전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미래신산업, 농생명, 문화·체육·관광, 정주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11만수료’ 업적 신천지예수교회 창립41주년 기념식

이만희 총회장 “하나님과 같은 온전함 이루고자 노력하자” 당부

지난 1984년 창립 이래 현재까지의 행보와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해 온 신천지예수교 증기장막성전이 지난 14일 창립 41주년 기념예배를 청주교회 현장에서 진행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성도들을 향해 성경에 입각한 신앙과 성정을 거듭 당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온전하게 창조되기를 원하신다. 나 자신이 이 말씀과 하나 돼야 한다”며 “계시록대로 이뤄진 실체까지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 내 소원도,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의뢰하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해야 한다. 타인을 지적하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온전함을 이루고자 노력하자”며 “그리고 다른

사람도 도와 나와 같이 되게 만들자는 사명감을 갖고 신앙하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신천지예수교회 성도가 되자”고 권면했다.

앞서 진행된 신천지예수교회 연혁보고에 따르면 2019년 110기 수료식에서 10만 3764명이 수료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0만 6186명과 10만 808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그리고 2024년에는 11만 1628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유례 없는 대기록을 만들어냈다.

아울러 신천지예수교회는 꾸준한 헌혈 봉사과 혈장 공여로 사회 공헌과 생명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24시간 만에 7만 1121명이 온라인 헌혈 신청을 해 기네스 세계기록에 등재된 바 있다.

/최준호 기자

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 대비 9개 기관기업과 MOU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에너지 활성화 박차…전북형 특화 새만금국가산단·진안군 상능길마을 2개 모델 개발

전북자치도는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활성화를 위해 9개 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 대비하고 전북형 모델을 구축해 지역 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는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진안군,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OCI SE, 진안고원협동조합, 전북테크노파크 등 9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특화지역 지정과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국가산업단지 5·6공구를 대상으로 한 ‘전력수요유치형 모델’ ▲진안군 동향면 상능길마을을 대상으로 한 ‘신산업활성화형



전북자치도는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활성화를 위해 9개 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모델’ 등 두 가지 특화지역 모델을 개발해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전력수요유치형 모델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며, 신산업활성화형 모델은 기존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에서 새로운

에너지 신산업을 도입하는 형태다.

협약에 따라 기관별 주요 역할이 정해졌다. 전북자치도와 시군, 새만금개발청은 특화지역 지정과 관련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며, 새만금개발공사와 전북개발공사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OCI SE와 진안고원협동조합은 전력 생산과 전력원가 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전북테크노파크는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운영 및 기업 지원을 맡는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은 올해 3~4월 공모 절차를 거쳐 2분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참여 기관 및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보유한 지역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각 기관과 기업이 협력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북 ‘올해의 건배주’ 선정…대표 전통주 발굴 전통주산업 활성화 모색

탁주, 약청주, 과실주, 증류주 등 4종류 제품…홍보, 판촉행사 및 행사 건배주 활용 등 판로 개척

전북자치도는 17일 지역 전통주의 인지도 제고 및 판로 확대를 위해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올해의 건배주’를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건배주는 ▲탁주 부문 ‘지애의 봄향기의 대비모주(김제시)’ ▲약·청주 부문 ‘공동체공간수작의 숨은 골약주(완주군)’ ▲과실주 부문 ‘덕유양조의 무주구천동머루와인(무주군)’ ▲증류주 부문 ‘초이리 브루어리의 리28(익산시)’ 등 총 4개 제품이다.

‘올해의 건배주’는 전북자치도가 지역의 우수한 전통주를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

업이다. 올해는 시군별 출품 개수 제한을 없애고, 주종별 5개 부문으로 세분화해 보다 다양한 전통주가 출품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전주,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부안 등 10개 시군에서 총 15개 제품이 출품됐다. 도는 출품된 제품을 대상으로 주류 품평회 입상 내역, 인공 감미료 첨가 여부 등 서류 평가를 진행한 후, 부문별 상위 3개 제품을 선정했다. 이후 주류 관련 전문 심사위원 3인의 관능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2025년 올해의 건배주’를 확정했다.

지난해 선정된 ‘2024년 올해의 건배주’ ▲전주 이강주 ▲한영석 청명주 ▲붉은진주 머루와인은 전북자치도 공식 행사에서 건배주로 활용되며 지역 전통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특히, 지난해 10월 열린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올해의 건배주가 공식 만찬주로 선정, 행사에 참가한 기업과 바이어들에게 전북 전통주의 품격을 선보였다.

도는 올해 선정된 건배주를 도내 공식 행사에서 적극 활용하고, 전통주 인지도 확산을 위한 언론 홍보, 오프라인 판촉 행사, 온라인 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



이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 및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판매망 확대에도 나선다.

/최준호 기자

도, 봄철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4월 4일까지 대형마트·수산물 유통업체·음식점 등 60곳 대상
20개 품목…수족관 내 생선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 17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소비 증가 수산물을 취급하는 대형마트, 수산물 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등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사항 지도 및 교육과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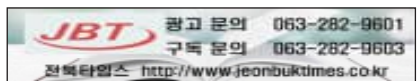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수산물은 총 20개 품목으로, 수족관에 보관·진열된 모든 살아있는 수산물 또한 원산지 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

시 및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래 내역 비치·보관 여부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 등이며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적발 시 원산지 미표시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도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정혜민 기자



‘시군청년혁신가예비창업지원’ 창업기업 육성 교육돌입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북혁신센터, 대표이사 강영재)가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내 12개 시·군과 함께 진행하는 ‘2025년 시군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사업의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이 17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 대강당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시군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사업은 도내 12개 시·군의 청년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역량 평가를 통해 우수(예비)창업자 33팀을 선정하여 사업화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비(13백만원)를 지원한다.

본 사업은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참여자 모집을 통해, 도내 12개 시·군의 (예비)창업자 총 136명을 발굴했다.

자격 요건 검토를 통해 선정된 청년 131명은 이달 17일부터 내달 2일까지 총 4회의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프로그램 1, 2차는 ‘에센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 혁신 비즈니스의 이해와 선배 창업자 특강, 사업계획구체화 교육 등으로 구성됐으며, 3, 4차 프로그램 ‘비즈니스 플랜 워크숍’은 참여자의 성장 단계별 (예비,초기,성장) 사업계획 작성 심화 교육을 운영한다.

전북창조경제센터 강영재 대표이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창업자들이 실질적인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의 우수한 창업 인재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전북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전주상의 ‘경영지원전문가 자문단’ 출범…기업지원 강화

전주상공회의소가 최근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지원을 위해 적극 발 벗고 나섰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지난 17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경영지원 전문가 자문단’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을 갖은 경영지원 전문가 자문단은 세무, 노무, 법무·법률, 건축, 회계, 관세 등 7개 분야 전문가

집단 46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전주상의 경영지원 자문단은 앞으로 전주상의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에 로에 대한 상담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분야별 이슈가 발생할 경우 각 분야에 대한 교육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할 뿐만 아니라 회원기업의 경영컨설팅 업무도 수행할 방침이다.

/최준호 기자

순창군, 적십자특별회비 전달…‘취약계층 지원 함께할 것’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는 순창군(군수 최영일)이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영일 군수는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적십자 봉사원들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하며 적십자의 이재민 구호와 취약계층 지원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적십자 회비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모금된 성금은 도내 재난·재해 구호활동, 취약계층 지원, 안전교육 사업 등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된다.

/최준호 기자

전북농협, 우수 농축협 시상식 개최…축하와 격려의 장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지난 17일 전북농협 2층 대강당에서 ‘전북농협 우수 농·축협’ 시상식을 개최해 축하와 격려의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농협은 2024년 모든 임직원들이 심각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경영안정화와 농업소득 증대, 조합원 실익 증진의 결실과 중앙회의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영예를 안았다.

금번 시상식에서는 ‘종합업적평가’ 최우수(1위) 농협 3개소 남원축협·익산원협·남원원협, 우수상(2위) 2개소 구

전동농협·정읍원협, 우수상(3위) 3개소 삼기농협·백운농협·임실축협, ‘상호금융대상평가’ 최우수 농협 3개소 남원축협·익산원협·용진농협, 우수상(1위) 1개소 남원원협, 우수상(2위) 3개소 삼기농협·변산농협·정읍원협, 우수상(3위) 6개소 화산농협·구전동농협·고산농협·순창농협·임실치즈농협·오산농협, ‘농업경제사업대상’ 1개소 고산농협, ‘자재사업연도대상’ 1개소 광활농협, ‘농협판매대상(산지판매)’ 우수상 1개소 진안농협 등 총 17개 농축협(7개 중 복수상)이 수상했다.

/최준호 기자

군산시, 2025년 기본형 공익 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개시

군산시가 내달 말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신청·접수를 개시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다.

시는 소농 직불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하며, 면적 직불금은 농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전년도보다 5% 증가한 1ha당 136~215만 원을 면적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달 30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신규 신청자와 관의 경작자·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의 경우 농지소재지 이장님에게 경작 사실 확인서를 받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사업 신청 시 콘크리트 시공이 된 묘묘장, 묘지, 주차장 등 농지의 형상이 유지되지 않은 면적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전체 수령금액의 10% 감액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지급 대상 농지에서 적법하게 실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지급 대상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부정수급 환수액을 완납하지 않는 자 등은 제외된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공익 증진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화학비료 적정량 사용 등 17개 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그중 농업인 교육 또한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해당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준수사항마다 각각 총액의 10% 감액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 35만 원 상당 지원

익산시가 장애인의 역량 개발과 활발한 사회 참여를 지원한다.

시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35만 원 상당의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보조금24 시스템으로 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익산시평생학습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담당자 전자우편(y.m1001@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 86명을 확정한다. 평생교육 바우처 수급자와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 농협에서 체육카드를 발급받아 전국 평생교육기관에서 강의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 기관은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 또는 익산시 평생학습관(063-859-515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차 지원사업 접수 시작

군산시가 지난 17일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금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 및 생활비에 대해 2024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차 전액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5년 3월 11일) 기준 군산시에 주소를 둔 전국 대학교(원) 재학생, 휴학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까지 확대하여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내달 11일까지이며 군산시청 누리집 또는 교육지원과(군산시청 7층)를 방문해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접수된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한 후 6월 중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대출 계좌로 지원금을 상환 처리할 계획이다.

궁금한 점은 시청 누리집이나 교육지원과(063-454-259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마을전자상거래, 매출 10억 돌파

1~3월누적매출약10억2000만원 지난해같은기간대비매출26%증가·기획전등 마케팅 성과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가 매출 10억을 돌파하며 제값 받는 농산물 판매로 소농·고령농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7일 익산시에 따르면 마을전자상거래의 올해 1~3월 누적 매출액은 약 10억 2,0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액 8억 1,000만 원 대비 26%가 증가했다.

이 같은 성과는 설 기획전, 봄 제철 농산물 기획전, 저장 농산물 기획전 등 다양한 마케팅으로 온라인 판매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한 품질 관리에 매진한 결과다.

시는 '생산은 농민이, 판매는 익산시'라는 가치를 걸고, 농업인들이 걱정 없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을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를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온라인 판매처를 확보하고, 시기별·계절별 기획전과 라이브 방송, 농산물 소비 할인 지원 등 다방면으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득 창출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 고도화(순화·수집, 일반 택배), 가격하락 농산물 판매 등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와 편의 증진에도 힘써 큰 호응

을 얻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가 입점 확대와 올해 판매액 43억 원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계속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단 운영, 잔류농약 검사 강화, 품질 관리 교육도 적극 추진한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마을전자상거래가 지역 농가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민들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판매 확대와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일자리창출위원회' 신설...정책 발굴 착수

학계·일자리 관련 공공기관·소상공 기업·언론·시의회 등 다양한 분야 외부 전문가 참여

정읍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정책 발굴에 나선다. 시는 지난 14일 오후 첫 '일자리창출위원회'를 개최하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공무원 중심의 '일자리정책추진단'에서 탈피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일자리창출위원회'로 새롭게 개편된 후 첫 회의다.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위원회는 학계, 일자리 관련 공공기관, 소상공 기업, 언론, 시의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8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읍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중심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4대 핵심 전략과 14대 세부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4대 핵심 전략으로는 ▲지역 일자리 창출 브릿지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신성장산업 육성



정읍시는 지난 14일 오후 첫 '일자리창출위원회'를 개최했다

을 통한 첨단 산업 일자리 확대 ▲상생형·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연계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책 확대 등이 제시됐다.

또한,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장려하고 고용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포상 추진' 사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평가하고 우수 기업을 선정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고용 증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Mate' 사업을 추진해 구인·구직자의 만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과 산업, 연구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산·연 일자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2006년생 청년 대상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1인당 15만 원 상당 공연·전시 등 관람 가능...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 선착순 신청

군산시는 만 19세(2006년생) 청년들이 문화예술 공연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2006년생 청년들에게 연극·뮤지컬·클래식·대중가

수 콘서트 등 공연과 전시 관람을 통해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 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006년생 누구나 가능하며, 총 869명이 지원 대상이다. 1인당 15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발급은 오는 5월 31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단, 사용기

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 후 예매일 기준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금액이 없는 경우 포인트가 회수된다.

가입 및 신청은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https://youthculturepass.or.kr/)에서 하면 되고 협력 예매처(예술24, 인터파크)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6차 식품산업 선도 도시 도약박차... (주)하림 탐방

간부 공무원 90여 명 (주)하림 견학... 지자체·기업 협력으로 미식산업·문화관광 연계 방안 모색

익산시가 향토기업인 ㈜하림과 협력해 6차 식품산업 선도 도시 도약을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익산시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4~5급 간부 공무원 92명이 참여하는 ㈜하림 견학을 추진한다.

이번 견학은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6차 식품산업 도시 구축을 위한 미식산업, 문화관광 연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방성면에 위치한 ㈜하림과 합열 제4산단 내 하림산업은 총 27만㎡ 규모의 시설을 갖춘 국내 대표 식품기업으로, 3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주)하림은 삼계탕과 용가리치킨 등 1천여 개의 제품을 생산하고, 하루 평균 65만 마리를 도계하는 등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또한, 하림산업은 퍼스



트키친(First Kitchen)을 통해 밥, 국, 탕, 찌개를 비롯한 가정 간편식과 천연 조미료, 라면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번 견학에서 익산시 간부 공무원들은 ㈜하림의 전자동화 식품 가공·육가공 공정을 직접 살펴본다. 아울러 올해 새롭게 조성된 하림산업의 온라인물류센터를 방문해 중간 유통과정 없이 신

선한 식품을 가정에 배송하는 혁신적인 물류 시스템도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견학을 계기로 1차 산업(농업), 2차 산업(식품 제조업)과 3차 산업(관광서비스업)의 융복합과 연계 방안을 분석하고, 지자체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창업 컨설팅·최대 1500만원 지원...오는 28일까지 선발인원 10명

정읍시가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선발된 청년 창업가는 창업 컨설팅을 받고 최대 1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시가 청년 창업가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올해로 4년째를 맞이했다.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선발 규모는 10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거주하는 18세~45세 이하의 청년으로 지역 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

자 또는 창업 1년 이내 초기 창업자가 해당된다.

선발된 청년 창업가는 '청년창업 역량강화 컨설팅'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최대 3년간 총 15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 창업가는 모집 기간 내에 구비 서류를 준비해 시청 일자리경제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세부 요건 등은 시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 금강미래체험관, 환경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무원 환경교육'·'우리는 고3 튼베리' 신설...기후위기 대응 공감대 형성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이하 '체험관')이 'Green 군산, 지구로운' (지구를 위한 슬기로운) 출발이라는 주제로 2025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올해는 기존에 운영해 왔던 프로그램 외에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어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 대응 공감대 형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 환경교육', '우리는 고3 튼베리'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공무원 환경교육'은 공무원(임기제, 시간제 포함) 및 직원(공무직, 청원경찰 등)을 대상으로 하며, 2시간 동안 체험관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상시 학습 인정(2시간)도 받는다.

이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은 ▲금강의 다양한 문화와 생태 ▲기후변화의

원인 및 기후 행동 실천 방법 ▲만들기 체험 ▲열대식물 관찰 ▲해양쓰레기의 심각성 교육 및 기후 행동 실천 다짐 등을 하게 된다.

'우리는 고3 튼베리'는 수능을 마친 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이 대상이다. 학생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인식 교육 기후 위기 대응 실천 방안을 알아보고, 자원을 재사용하는 방법도 배운다.

작년에 실시해 큰 호응을 얻은 전시관 상시프로그램과 우리는 군산지킴이(시민환경동아리)역시 올해도 운영된다. 그밖에 기후 위기 5개 주제를 가지고 실시하는 찾아가는 초·중등 미래교실도 각 학교와 체험관을 오가며 교육이 진행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전북시민대학 운영사업 3년 연속 공모 선정

군산시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역점 평생교육 사업인 '전북시민대학 운영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되어, 도비 7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날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사업에 참여, 총 2차례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최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시민대학 운영사업'은 지자체와 대학교가 상생·협업해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해 시민과 지역의 동반 성장과 양질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는 올해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 지난달 7일부터 4개 대학교 실무자와 3차례 걸쳐 양질의 특화 교육과정을 협의했으며, 학습 참여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대학 캠퍼스별 학습매니저도 선발해 학습형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북시민대학 군산새만금캠퍼스는 오는 24일부터 전북시민대학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교육생을 모집하며,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총 15개 교육과정이 동시에 운영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정읍시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앞두고 시기3지구·연지5지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토지 경계 정비와 땅지 해소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14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주민설명회에는 시기3지구(정다운요양병원방송통신대 정읍학습관 일원)와 연지5지구(IC사거리 구 소방서 일원)의 토지 소유자·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의 경계가 현재 토지 이용 실태와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오며 이웃 간 경계 분쟁 해소, 땅지 해소, 도로 접속 문제 해결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추



진 절차 ▲경계 설정 기준 ▲조정금 산정 방식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역할 등을 안내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책임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을 진행하며 토지소유자들과의 경계 협의를 거쳐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63-539-53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순창 봄맛 느끼는 ‘참두릅 여행’ 첫선

‘명품 생태하천’ 양지천, 지역 랜드마크 부상…순창 참두릅·봄나물 홍보 특산물 판매·관광지 사진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

청정 순창의 봄맛을 만끽할 수 있는 ‘순창 참두릅 여행’ 행사가 오는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지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순창군이 주최하고 순창농협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명품 생태하천으로 변모하는 양지천을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각시키고, 순창의 대표 농산물인 참두릅과 봄나물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은 양지교를 중심으로 천변 양쪽에 3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되며, 순창 참두릅과 봄나물 판매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참두릅과 봄나물의 향긋한 맛과 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 행사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아울러, 순창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사진 전시회가 열려 순창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으며, 3만 원 이상 구매 시 두릅을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돼 있어 방문객들에게



순창의 대표 농산물인 참두릅과 봄나물을 알리기 위한 ‘순창 참두릅 여행’ 행사가 오는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지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특별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축제는 순창군민의 날(4월 18일) 및 구곡순담 백세인 잔치와 함께 개최돼,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에게도 순창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순창 참두릅 여행’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홍보 영상 제작, 포스터·리플릿 배포 등을 활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순창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 도시민 체류인구 유치 ‘농촌체류형쉼터’ 도입

건축물형태 임시 숙소…소방·응급차 진입 가능 농지 해당

완주군이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쉼터’를 시행한다. 농촌체류형쉼터는 농지전용 허가 없이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연면적 33㎡(약 10평)이하의 가설 건축물형태의 임시숙소다.

처마(1m 이내), 데크(최대 연장 외벽의 1.5m 이내), 주차장(노지형 13.5㎡ 이내) 등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일부 시설이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쉼터는 거주를 전제로 한 임시 숙소이므로 소방차·응급차 진입이 가능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쉼터 부지면적의 최소 2배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야 가능하다.

또한,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쉼터 및 부속시설 외의 농지는 실제 농업 경영이나 주말체험 영농으로 활용해야 한다.

쉼터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축산과에 방문해 사전 쉼터 설치 검토 후 열린민원과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와 구비서류(배치도, 평면도, 토지사용승낙서 등)를 제출하면 관련 부서 검토 후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농막 소유자에 한해서도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어,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전기·수도·오수처리 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농지에 진입로(도로~주차장)를 개설할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협의) 신청이 필요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손쉽게 농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완주군의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춘향제에서 만나는 유채꽃 준비 ‘작작’

승사고 하천 둔치서 꽃단지·차박·푸드트럭 등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는 제95회 춘향제 대비 승사고 하천에 유채꽃 등 꽃단지 3ha 개화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해 10월 약 9,000평 부지에 유채, 금연화, 꽃단지, 수레국화를 파종해 춘향제 행사장을 확대할 계획으로, 작년 10월부터 승사고와 주촌천 합류부 유류부지를 양질의 토양을 성토해 시민들과 상춘객 맛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꽃밭을 조성하기까지 관련 부서들과 협조해 남원시민이 요철을 산책하며 춘향제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유채를 볼 수 있도록 생육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급수·제초작업을 실시하며 현재 꽃단지 개화 관리에 본격 착수하고 있다.

또한, 유채밭 내에는 포토존, 경관조명 등을 설치해 주야간 볼거리를 한층 확대하고 유채밭 주변에 차박, 푸드트럭, 폼바, 드론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춘향제 기간 요철면 유채밭의 노란 물결을 승사고에서 감상하고, 야간에 노을도 함께 구경할 수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 시민 원탁토론회 열어…아동친화도시 기반 다져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난 15일 시청 강당에서 아동·청소년, 보호자, 아동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열었다.

남원시는 올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과 주요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아동친화도시 6개 주요 영역인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환경 ▲가정환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제언은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남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해 아동이 살기 좋은 남원시를 만들기 위한 기초를 다질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원탁토론회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재전순창군향우회,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 성료



재전순창군향우회(회장 김용근) 2025년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가 지난 14일 전주 알렌시아 컨벤션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최영일 순창군수, 군청 간부공무원, 재전순창군향우회원 등 2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고향 발전과 화합을 다진 이날 행사는 재전향우회 2024년 회계감사·결산보고, 2025년 사업계획보고 등 정기총회에 이어 기념행사, 만찬 및 친교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배사과 142농가 화상병 방제 약제 배부

완주군이 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해 배, 사과 142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방제 약제를 배부한다.

17일 완주군에 따르면 화상병의 주요 발생지는 경기, 강원, 충북이지만 최근 전북 무주까지 남하했다. 화상병은 사과, 배 및 장미과에 속한 일부 식물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세균성 감염병이다. 감염 시 잎자루를 따라 갈변해 어린 가지가 갈고리 모양으로 휘고 불에 탄 듯한 마른 증상이 나타나며 2015년부터 국내에서 발생해 국가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됐다.

화상병은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발생 시 과원을 폐원해야 하기에 철저한 예방이 최우선이다.

/완주=김명곤기자

군은 약제선정심의회에서 선정된 방제 약제 3회분을 거주지 읍·면·농협을 통해 지원해 사전방제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과수화상병은 식물검역병으로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기주작물인 사과·배에 대한 예방적 약제방제를 의무화 하고 있다. 약제를 수령한 농가는 의무적으로 방제해야 하며 약제와 함께 배부받은 방제확인서와 농약병(포장재)은 1년간 의무 보관해야 한다. 사전 약제 방제를 하지 않거나, 농약 봉지 보관을 이행하지 않은 농장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폐원보상금 감액 기준이 적용된다.

남원시, 2026년도 농식품부 예산 2,258억원 심의 확정

남원시는 지난 13일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을 위해 시청 회의실에서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농업 관련 유관기관, 농업인단체, 농업인 대표, 업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예산 신청(안)에 대해 예산 신청내용의 타당성, 농정방향과 적합성 등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했다. 2026년 분야별 예산 신청 내역은 농정·농촌·유통·축산 분야 40개 사업 872억 원, 농생명·식량·원예·임업 분야 38개 사업 1,386억으로 총 78개 사업에 2,258억 원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농정·농촌·유통·축산 분야에서는 농업정책보험(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농업생산기반시설(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 지원사업, 가축분뇨처리사업 등이 있고, 농생명·식량·원예·임업 분야에서는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기반조성,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기본형 공익직불, 전라직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이 있다.

시는 이번 정책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을 3월 중 전라북도에 제출할 계획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심의를 거쳐 2025년 하반기에 최종 확정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최대 700만원 지급

순창군은 농촌마을 경관 개선을 위한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사업비 총 13억을 투입해,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 또는 벽체를 사용한 주택 290동, 부속 건축물과 창고, 축사 등 비주택 30동, 지붕개량 48동에 대한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주택 최대 700만원, 비주택 최대 540만원, 지붕개량 최대 300만원으로 지원 한도액을 넘으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전액을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1,00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주택을 창고와 축사만 지원하던 것에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까지 범위를 확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업량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관을 참고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고산도서관, 섬유공예동아리 ‘소잉소잉’ 참가자 추가 모집

완주군 고산도서관이 도서관문화예술동아리 ‘소잉소잉’ 2025년 프로그램인 ‘주인공처럼 런웨이!’ 참가자를 오는 28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소잉소잉’은 2024년 도서관문화예술동아리 지원사업에 선정돼 섬유공예에 관심 있는 주민들로 구성됐다. 2024년에는 ‘그림책이 살아있다!’를 주제로 그림책 속의 캐릭터들을 주민들이 실제 인형으로 재현했고, 현재 고산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에서 전시 중이다. 올해는 동아리 회원들이 책을 선정해 책 속 주인공이 입은 옷이나 소품을 만들어서 복작복작 책속캐릭터 고산도서관 로비에서 작품을 가지고 주인공처럼 런웨이를 할 예정이다.

오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일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7시에 다 같이 섬유공예를 연구하는 수업이 진행되고 마지막 주를 제외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는 자유롭게 동아리 회원들이 모여 책을 읽고 주제에 관련된 섬유공예 작품을 제작한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립도서관 홈페이지(lib.wanju.go.kr) 공지사항이나 완주군립고산도서관(063-290-2647)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재정 신속집행 ‘총력’…민생경제 회복 모색

완주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신속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군은 17일 유희태 완주군수 주재로 확대간부회의에서 ‘2025년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현황 보고회’를 열고 예산집행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 군수는 각 부서로부터 신속집행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완주군 1분기 신속집행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사업과 민간사업보조사업 등 전략과목 중심으로

예산집행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신속집행과 연계해 군정 분야별 핵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군은 지난 1월부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추진단을 운영하고, 재정집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며 집행과정상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하는 등 신속집행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유군수는 2026년 국가예산 중점 대응사업과 2025년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 및 예산 반영 건의를 위한

중앙부처와 전북도 등 관련 기관 출장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도 담당실국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중앙부처 동향에 따른 적시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간부회의의 시작 전 유 군수는 완주군정을 방문한 이권재 오산시장을 간부들에게 소개하며 완주군-오산시 자매결연과 완주산 로컬푸드의 오산시 공공급식 납품 등 양 지자체간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무주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조세 정의 실현 행정력 집중

무주군이 오는 5월 31일까지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할 계획인 가운데 지난 17일에는 도와 합동으로 고액 체납징수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카라반, 임목)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으며 자동차 및 부동산 등의 등기 자산에 대한 압류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미등기 동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채권을 확보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체납징수에 나선 무주군은 고액 체납자 방문에 앞서 지방세 체납안내장 발송을 완료(11일)했으며 체납자의 자동차 및 부동산을 일제 압류·공매 의뢰한 상태다.

4월에는 자동차 번호판 일제 영치가 예정돼 있으며, 급여 압류 및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 등으로 징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무주군청 재무과 김진구 과장은 “무주군은 상습 고액체납 행위를 뿌리 뽑고 성실 납세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범질서 확립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또는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납세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전문농업경영인 양성 제18기 농업인대학 입학식 개최

임실군이 지난 14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제18기 농업인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임실군 농업인대학은 지난 2008년에 운영을 시작해 지역 특화 품목 중심의 체계적인 전문 기술교육을 통해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양성하고, 농업 경쟁력 향상 및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입학식에는 학장인 심 민 군수를 비롯해 교육생 25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 특강 및 오리엔테이션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18년 차를 맞은 농업인대학은 복숭아 기초과정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매주 1회 진행되며, 체계적인 이론 및 현장실습, 선진지 견학 등 교육을 통해 지역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갈 핵심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농업인대학 학장인 심 민 군수는“농업인대학의 복숭아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 기술과 농업 경영 능력을 갖춘 우수 농업인으로 성장해 임실 복숭아가 명품이 되는데 일조해 주시길 바란다”며“군에서도 지역 특화작목 육성과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 중심의 군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군, 통합건강증진 간담회 열어 학교 보건사업 연계 체계 구축 협력

임실군 보건의료원이 2025년 통합건강증진 학교보건사업 활동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 지원을 위해 지난 13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임실교육지원청 별관(wee센터)에서 진행됐고,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담당자와 관내 초·중·고등학교 보건담당교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 내용으로는 2025년 통합건강증진 학교보건사업 취지 및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고, 각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관 간의 협조 사항과 지원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학교와 의료원의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 전문 강사 및 뮤지컬 공연 등으로 신체 활동·영양·금연·음주폐해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구강검진, 불소도포 및 구강 관리 용품을 지원해 학령기의 올바른 건강관리 습관을 형성하도록 적극 앞장설 예정이다.

김대곤 보건의료원장은“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료원과 학교 간의 학교보건사업 연계 체계를 구축협력함으로써 청소년기에 알맞은 보건 사업을 수행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환경부 방문…국비 확보 발품

황인홍 무주군수, 이병화 차관 만나 신규사업 및 33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건의

무주군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7일 환경부를 찾은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병화 차관과 만나 환경기초시설 관련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허가 문제는 물론, 사업비 확보 등 도움을 요청했다.

황 군수는 먼저 2026년 신규사업으로 ▲무주군 폐기물매립시설 확장 사업과 ▲여원 하유, 잠두 등의 농어촌 마

을하수도 정비 사업(총사업비 189억 원)등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무주가 ‘자연특별시 무주’ 브랜드를 강화하고 생태관광명소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공모를 신청한 ▲무주 구천동 33경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환경기초시설 인프라 확대는 군민을 위한 환경복지 실현은 물론, 자연특별시 무주에 걸맞은 생태환경 기반을 닦는 길”이라며 “천혜의 생태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사

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돼 무주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어려운 재정 여건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와 관계부처를 찾아가 수시로 국회의원은 물론, 부처의 담당 사무원들을 만나고 있으며 관광과 SOC사업, 환경 등 분야별 현안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필요 국비 반영을 요청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제1회 용담댐 수물민 만남의 날 열려

오는 4월 12일 용담면 체련공원에서 개최…처음 한자리에 모여 고향 추억 나눈다

제1회 용담댐 수물민 만남의 날 행사가 오는 4월 12일 용담면 체련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용담댐 건설로 고향을 떠난 수물민들에게 고향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그리웠던 이웃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용담댐 수물민 만남의 날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진안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 지사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약 25년 전 용담댐 건설을 위해 진안군 8개 읍·면 68개 마을과 12,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다.

함께 생활했던 이웃들과 헤어지고, 농사를 짓던 논지와 산들은 용담호의 물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이에 지난 2023년 12월 진안군의회 이미옥 의원의 의원 발의를 통해 ‘진안군 용담댐 수물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이에 구성된 용담면 수물민 만남의 날 운영위원회에서는 매년 4월 두 번째 토요일 날을 만남의 날로 지정했으며 그 첫 행사가 올해 열리게 됐다.



제1회 용담댐 수물민 만남의 날 행사가 내달 12일, 용담댐 수물민 만남의 날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진안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 지사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올해 첫 만남의 날 행사에서는 수물민들을 위한 볼거리, 즐길 거리 등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먼저 수물 당시 풍경과 사람을 담은 사진 전시가 열린다.

또한 고향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시골 장터에 가면 항상 들려오던 ‘뽕이요’ 튀김집을 운영하고, 학창 시절 교복을 입어보고 사진에 담아 가져갈 수 있는 인생네컷, 명석에 각석이 숲놀이

코너 등 옛 시절을 느낄 수 있는 많은 체험을 즐길 것으로 기대된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전북자치도의 첫 줄인 용담호 속에 담긴 추억들을 다시 한번 꺼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마련했다”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변한 고향의 모습도 보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이웃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한국여행사협회 초청, 임실관광 팸투어 성료

대표 관광명소 방문 등 답사 진행…심 민 임실군수, 관광홍보 직접 설명 ‘호응’

임실군이 2025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한 한국여행사협회 초청, 임실관광 팸투어 행사가 여행사 관계자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군은 지난 14일과 15일 2일 동안 한국여행사협회원 60여 명을 초청해 임실군 일원에서 팸투어를 진행했다.

한국여행사협회 회원들은 임실 지역의 여행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전북 119안전체험관, 임실치즈테마파크, 성수산 왕의 숲, 필봉농악전수관 등 대표 관광명소를 직접 둘러봤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심 민 임실군수가 임실군 관광홍보에 직접 PT 설명에 나서서 큰 호응을 얻었다.

심 군수는 “그동안 임실군은 관광에는 불모지나 다름없었지만, 임실치즈 테마파크와 옥정호를 개발하면서 생활인구가 2018년에 498만 명에서 지난해 888만 명을 달성하며 78%가 증가했다”며 “올해는 그동안 꿈꿔왔던, 천만 관광



시대를 활짝 열고, 관광중심지로 우뚝 서겠다”고 적극적인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또한 강명자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임실군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이어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심 민 군수는 “사계절 내내 특별한 매력이 있는 우리 임실군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광객들과 함께 자주 찾아와 주시면 좋겠다”며 “이번 팸투어가 여행사 협회원들에게 임실군의 관광지를 알리고, 천만관광객을 유치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하수도시설 점검 및 관로 준설사업 추진

장수군은 원활한 하수흐름 및 악취피해 개선을 위해 하수도시설 점검과 관로 준설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장수군은 주요 차집관로 및 상습 침수·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하수관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배수 기능 저하

의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효율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간 관로 내에 퇴적된 토사, 기름, 생활폐기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수 가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수관로 준설사업을 추진해 원활한 하수흐름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은 군민들에게 하수도시설 관

리요령 ▲음식물 찌꺼기 및 폐기물 하수구로 흘려보내지 않기 등을 각 읍·면 사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정기적인 하수관로 점검 및 준설작업을 통해 안정적인 하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의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사법 체계 무너져…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일 지경해 줄 것”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의 정의와 도덕성을 심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석방된 것은 대한민국

동창옥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압박에 흔들림 없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신속히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며, “군민과 함께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진안군의회 의원들은 진안군민을 대신해, 탄핵 심판 선고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1인 릴레이 농의 사법 체계가 무너졌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업체와 성과 공유

무주군은 지난 17일 대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년 차를 맞아 그간의 추진 상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20개 업체가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무주군은 공급업체에 ▲답례품 품질과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부자들이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고향사랑e음 상에서의 답례품 후기, 질의응답(Q&A)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 등을 강조했다.

또 답례품 탁송 상의 어려운 점과 건의 사항 등 업체 이야기도 들으며 협력 파트너로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정성희 과장은 “기부자 만족도를 높여 재 기부율을 높이고 무주군 고향사랑기부, 나아가

반딧불농특산물과 지역 홍보로 이어지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답례품 업체들과 머리를 맞댄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주군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이 최고라는 인식을 얻을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가 더욱 활성화돼 무주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총 72개 품목으로 ▲내고향 재기부권을 비롯해 ▲관광서비스(사진영상촬영권, 서평제원권, 무주머루와인동굴이용권, 태권어드벤처이용권 등) ▲농축산물(호두, 샤인머스켓, 잠곡세트, 쌀 등) 등 다양하다.

한편, 무주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납품업체는 총 39곳으로 이 중 39개 업체 모두 올해 12월 협약 기간이 만료돼 무주군은 하반기 “2026년 답례품(공급업체)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주영환 진안부군수, 주요 사업장 방문…현장행정 펼쳐

주영환 진안부군수는 지난 14일 군 주요 현지 사업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사업 진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펼쳤다.

관내 주요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시한 이번 현장 방문은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등 건설공사와 그 밖에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 등 13개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주영환 부군수는 각 사업장의 진행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

업들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실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현장에서 주영환 부군수는 “각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차질없이 주요 사업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진안군은 이번 현장 점검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토대로 사업추진에 반영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합동점검 실시

장수군은 지난 13일 개학기를 맞아 장수군, 장수경찰서, 장수교육지원청 3개 기관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 유해업소·약물·물건 등에 대한 점검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일탈행위를 예방해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장수읍 및 장계면 일대 청소년 유해업소 및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합동점검단은 일반음식점, 유흥업소, PC방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

입·고용 금지 위반 행위 여부 ▲19세 미만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표지 부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최훈식 군수는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계도 활동을 진행하겠다”며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김성석 작가 'In生(인생)' 전시회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이 이날부터 김성석 작가의 'In生(인생)'展을 개최한다.

전북 명품관광지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올해 두 번째 맞는 지역작가 공모전시로 김성석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넬 예정이다.

김 작가는 사람이 살아가며 겪고 느끼게 되는 일들을 참신하게 풀어내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로 소통하는 작가로 철(鐵)을 주 소재로 조각을 하여 기존의 회화 작품과는 색다른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간다.

특히, 김성석 작가의 대표작인 <건넌만해>는 작가의 풍자와 해학이 넘쳐 이목을 끌고 있다.

김 작가의 'In生(인생)' 전시는 삼례문화예술촌 제3전시관에서 오는 18일부터 5월 11일까지 만나볼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삼례문화예술촌(290-3869)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금동, 감자에 사랑씩이트다!...유휴지 텃밭 감자심기 추진

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봉례)와 통장협의회(회장 박동섭), 발전협의회(회장 최재우)는 지역 내 유휴지를 활용한 '심(心)고 나누면 행복하고~ 심나고프로젝트 사랑나눔 감자심기' 행사를 지난 17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로당 및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금동 직원들과 통장협의회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정성껏 씨감자를 심으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특히, 이영노 10통장님께서 유휴지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시고 농작업에도 적극 지원하며 의미 있는 활동에 동참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금동 박동섭 통장협의회 회장은 "지역주민들의 따뜻한 나눔 덕분에 어르신들께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껏 재배한 감자는 오는 6월쯤 수확하여 경로당 및 독거노인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며 금동행정복지센터는 지속적인 농작물 재배를 통해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정읍 칠보고, 전국장사씨름대회 '기량 뽐내'

단체전 3위·개인전 역사급 2위...개인전 역사급 출전한 3학년 이현우 선수 '하이라이트로 자리매김'

지난 12일 경북 문경시에서 열린 제55회 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칠보고등학교(교장 최기석) 씨름부가 고등부 단체전 3위, 개인전 역사급(100kg이하) 2위를 차지하며 주목을 받았다.

특히 개인전 역사급에 출전한 3학년 이현우 선수는 결승전에서 대구능인고의 전병건 선수와 맞붙어 1:1 초박빙 경쟁에서 1:2로 아쉽게 패하며 2위를 기록했다.

이현우 선수는 강한 상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 이번 대회



지난 12일 경북 문경시에서 열린 제55회 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칠보고등학교 씨름부가 고등부 단체전 3위, 개인전 역사급 2위를 차지했다

의 하이라이트로 자리매김했다.

칠보고등학교 씨름부는 2023년 3월에 창단되어 칠보초-칠보중-칠보고라는 씨름 명문으로 자리잡았다.

조명신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히 훈련에 임해왔으며, 이번 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열릴 대회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동군산로타리클럽, 학대피해아동 지원 후원물품 전달

후원물품 동군산로타리클럽 회원들 직접 구입 마련... 군산지역 내 학대피해아동 가정 5곳 전달 계획

전북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조현경)은 동군산로타리클럽(대표 박효균)으로부터 학대피해아동 가정 지원을 위한 후원물품을 전달받았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전달식은 전북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됐으며 전북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조현경관장, 동군산로타리클럽 박효균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 후원물품은 동군산로타리클럽 회원들이 직접 구입하여 마련

했으며, 군산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학대피해아동 가정 5곳에 전달될 계획이다.

동군산로타리클럽 박효균 회장은 "전달된 물품이 학대피해아동과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동군산로타리클럽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북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동군산로타리클럽으로부터 학대피해아동가정 지원을 위한 후원물품을 전달받았다 (사진제공=전북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남원 이백면 여성의용소방대, 어르신 염색봉사

이백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안명엽)와 이백면 여성의용소방대(대장 이지윤)은 올해도 어김없이 '청춘불드림 찾아가는 경로당 염색봉사'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청춘을 책임지고 있다.

이백면 여성의용소방대와 이백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21개의 마을경로당을 매주 목, 금 직접 찾아가며 염색봉사 서비스도 제공하며, 이에 맞춰 이백면 맞춤형복지팀에서도 복지서비스 안내, 건강

상담, 애로사항 청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의용소방대 이지윤 대장은 "이백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오랜기간 함께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을 할 수 있어 보람차다"고 말했다.

이러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은 입을 모아 "염색하면 하려면 시내를 나가야 해서 힘들었는데 찾아와서 염색을 해주니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김제시·용지면, 찾아가는 키오스크 활용 교육 진행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4일에 이어 17일, 서정마을과 수하마을을 경로당에서 마을이장을 포함한 각 마을 주민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키오스크(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청 정보통신과 주최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스마트폰 기본기능 조작법, 카카오톡 사용법, 키오스

크 체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사진 촬영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실생활에서의 키오스크(스마트폰)를 더욱 쉽고 자신감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서정마을 이경남 이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를 보다 쉽게 다룰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정읍시청 정성섭·김현정 부부, 지역 인재 위해 장학금 200만 원 기탁

정읍시 공직자 부부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했다.

지난 14일 정성섭 산외면장과 김현정 교육지원팀장은 200만원을 정읍시민장학재단에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장학재단에 기부하며 지역 인재들에게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번 기부는 지난 6일 별세한 김현정 팀장의 모친상 조의금 일부를 장학금으로 기탁하며 더욱 뜻깊은 의미를 더했다. 김현정 팀장은 "많은 사랑을 베풀고 떠나신 어머니를 기리는 마음으로 조의금 일부를 기탁하게 됐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고창군 성송면, 성송교회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기탁

고창군 성송면 성송교회(담임목사 정태승)가 지난 14일 성송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하였다.

성송교회는 매년 꾸준히 이웃들을 돕기 위한 성금을 기부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변함없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

정태승목사는 "매년 조금씩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주변 이웃들을 돕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기탁된 성금은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성송면 어려운 이웃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에게 쓰일 예정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배움에 소외 없도록" 익산시

모현동 지사협, 아동 학습 지원

모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강동혁, 최병철)는 '방과 후 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습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아동의 교육 기회 확대와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학습지 전문 업체와 협력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저소득층 아동 25명에게 주1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초 학력을 탄탄히 하고 자기주도형 학습 습관 형성을 도울 예정이다.

최병철 민간위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치는 아이가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든든한 지지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동혁 모현동장은 "민관 협력을 강화해 지역 내 모든 아이가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이웃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

농업인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청년愛 희망을, 노년愛 행복을, 농업愛 미래를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연금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과원규모화사업

농지은행은 농지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농지은행'을 검색하세요

검색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매, 임대를 통한 영농규모확대 지원
- 고령은퇴, 이농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임대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농지우선지원

- 청년후계농의 빠른 영농정착을 위해 우선 지원
- 생애 첫 농지구입자금 저리 지원, 5~10년 장기임대

* 과원규모화사업

- 고령·은퇴농, 비농업인 등의 과원을 매입 또는 임차해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등에게 매도, 임대

* 농지연금사업

- 만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원
- 배우자 승계가능, 가입비 없고 재산세 감면 혜택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 및 한매보장 등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임대수탁사업

-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5년이상 장기임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상담/문의 1577-7770

홈페이지

www.fbo.or.kr



〈一事一言〉



악은 어떻게 내면화하는가?(3)

강수돌
고려대 명예교수

대체로 우리는 부모의 품을 떠나 살게 될수록 ‘가혹한’ 현실을 경험한다. 돈이 없으면 세상은 매우 비참하다. 방 한 칸 얻는 것도 돈이요, 지하철 하나 타는 것도 돈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돈이 많으면 사람처럼 살겠는데, 돈이 없으면 노숙자나 거지가 된다! 그리하여, 세상에 믿을 건 하나도 없는데, 심지어 부모조차 믿기 어려운데, (밖에 나가면) 오로지 돈만이 힘이고 권력이고 말빨(!)임을 반복 경험, 체험한다. 상품, 화폐,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러한 경험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평범한 현실, 일상의 법칙이 된다.

이제부터 삶의 의미나 존재, 인간관계, 자연관계 같은 건 위선이나 사치에 불과하고 오로지 ‘돈 되는’ 것만 가치 있게 보인다. 그리하여 특정 종교나 집단이 ‘돈 되는’ (밥 주는) 주장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끌려 들어간다. 한두 번, 그리고 두세 번 ‘실제로 돈 되는’ 경험을 반복하게 되면 ‘이것!’이란 확신을 한다. 최근 독일 총선에서 극우와 정당(AfD)이 20% 이상 득표한 것도 이런 맥락이며, 한국에서 극우 종교, 극우 언론, 극우 정치의 동맹체가 출현하고 있는 현상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요컨대, 이는 ‘현타-실익-소신화’의 경로다. 그 결과 자신도 모르게 ‘악의 내면화’가 이뤄지고 (백골단 부활이나 법원 폭동, 현재 폭파 주장에서 드러나듯) ‘악의 확산법’이 된다.

셋째, 이와 연관되면서도 좀 다

른 측면에서 ‘악의 내면화’를 볼 수 있다. 그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폭력을 반복 경험한 결과 ‘트라우마’에 찌든 사람들이 나름의 생존전략으로 ‘강자동일시’ 심리를 수용한 결과라는 것! 앞에서 국가나 자본은 아이들을 일찍부터 세뇌하려 함을 보았다. 그러나 성장하는 아이들이 늘 순종하는 건 아니다. 일탈 내지 저항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이 한두 차례 저항을 했다가도 거듭 패배하고 좌절하면 결국엔 죽음, 배제, 탈락, 낙인의 두려움(공포)을 감당하지 못하고 생존을 위해 주체성과 저항을 포기한다. 체제 전반의 차원이건 개인적 차원이건 ‘강자동일시’가 일어난다. 비판자나 저항자들을 척결하면서 승승장구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일한 것으로 여기거나, 자기가 아는 성공자, 출세자를 마치 자신과 한 몸처럼 여기는 것이 모두 ‘강자동일시’다. 그 한 결과가 ‘악의 내면화’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 개념을 내세우며 대량학살(홀로코스트)을 수행한 아이히만이 ‘별생각 없이’ 국가와 조직에 충성하고 복종했으며 성실했을 뿐이었다. 반면, 아렌트보다 60년이 젊은 베티나 슈탕네트는 ‘악의 확산성’ 가설을 제시, 아이히만이 인종주의 내지 반유대주의를 상식화, 소신화, 신념화했다고 본다. 아렌트에게 키워드는 ‘무사유’ 즉, 생각 없음 내지 피해의식의 위험함이다. 피해의식 뒤로 숨는

‘피해자(희생자) 코스프레’는 무사유 외에 무책임을 드러낸다. 이는 최종적으로 무자비한 행동을 정당화한다. ‘~적 하는’ 피해자가 책임 전가를 통해 가해자로 둔갑하기 때문! 아이히만도 사형 직전의 법정 최후 진술에서 “나 역시 일개 희생자”라 했다. 원래 국가 폭력의 희생자조차 (어느 순간엔) 양심적 거부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가 되기도 한다.

반면, 슈탕네트에게 키워드는 ‘신념화’ 즉, 외적 가치의 내재화다. 그야말로 일반인이 보기에 비인간적이고 반민주적인 것(예, 인종주의나 이기주의)도 이들에겐 소신 내지 행동 규범이 된다. 외적 가치를 내적 가치로 내재화한 상태이기에, 이 둘 사이의 경계가 더 이상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들 논리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오히려 책임의 주체(예, 유대인이나 굶픈 자는 사회의 장애물)로 둔갑한다. 그리하여, ‘희생자 나무라기’ 또는 ‘희생양 찾아내기’가 예상로 행해진다.

일단 걸으로는 이 두 학자들의 명제가 서로 공통점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두 명제 모두 ‘성찰의 부재’란 공통점을 내포한다. 악의 평범성도, 악의 확산성도, 성찰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성찰이 없다면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쉽게 악인이 된다. 성찰, 그것도 ‘근본 성찰’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최근 한국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도, 또, 지금의 전 지구적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도, 나는 이 근본 성찰의 부재가 존속하는 한 특정 개인(들)의 죽음은 물론, 한 나라, 한 사회, 나아가 지구 전반의 죽음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 본다. 특히, 나치 파쇼주의나 반유대주의, 인종주의, 반공주의, 흑백논리, 가부장주의, 생산력주의, 능력지상주의, 성장지상주의를 체계적으로 부채질하는 자본주의 사회경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절박하고도 긴요한 시점이다.

아이히만은 죽기 전 이스라엘 감옥에서 자신을 “계몽주의와 세계주의를 갈망하는 평범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포장했다. 최근 12·3 비상계엄과 관련, 윤석열은 “(야당인) 민주당의 폭주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 하며 ‘계몽령’이란 말까지 간접 창조했고, 김재리 변호사는 “나는 계몽 되었다”고 했다. 이들의 최후 진술과 아이히만의 최후 진술 사이에 무엇이 다른가?〈끝〉

본 칼럼은 시민연론 만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또 초부자 감세인가, 유산취득세안 중단하라

정부가 또다시 ‘부자 감세’ 논란을 자초했다. 정부는 현행 상속세를 폐지하고 ‘유산취득세’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각 상속인이 받는 몫에 따라 개별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얼핏 보면 ‘공평 과세’로 포장될 수 있지만, 속내는 전혀 다르다. 실제로는 상속재산이 클수록 세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구조다.

더구나 자녀 공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무려 10배나 늘리겠다는 방침까지 포함됐다. 결국 초고액 자산가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려는 꼼수에 다름아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5억원인 경우를 보자. 자녀 3명이 균등하게 물려받을 경우, 현행법하에서는 자녀 1인당 8천만 원씩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정부의 유산취득세 안으로 전환되면 단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자녀 공제 5억원이 적용되면서 과세표준이 사실상 ‘제로’가 되기 때문이다.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이는 단순한 세제 개편이 아니라 부자들을 위한 ‘부의 대물림’ 제도 강화일 뿐이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상속세를 내는 피상속인 중 최상위 1%(3천590명)가 전체 상속세수의 89.1%를 부담하고 있다. 대한민국 상속세는 ‘초부자세’라고 불려도 무방하다. 그런데 이들 1%를 위해 세제 개편을 한다는 것인가?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국가 재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은 심각하게 훼손된다. 정부가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줄곧 부자 감세 정책을 밀어붙여 온 가운데 이제는 상속세까지 대폭

깎아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한다는 증거도 없고 종부세 완화로 서민 주거 안정이 개선됐다는 근거도 희박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감세가 초래하는 국가 재정 악화다. 세금이 줄면 결국 복지재정, 지방교부세, 연구개발 예산 등 국가의 미래와 서민들을 위한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는 이미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지방정부에 내려가는 교부세도 축소했다. 복지예산 역시 감소세를 보이며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유산취득세 개편은 국가 재정 위기라는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정부는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제 상속세 부담률은 상속이 발생하는 전체 가구 중 1.6%에 불과하다. 나머지 98% 이상의 국민은 상속세와 무관하다. 오히려 현재의 상속세 구조는 부의 편중을 완화하고 자산 격차를 줄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 그걸 뜯어고쳐 부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은, 결국 사회적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부자 감세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 부의 대물림을 용인하고 부자들에게 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세제 개편은 조세 정의에 정면으로 반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상속세 개편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재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극소수 초부자가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재다. 재정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유산취득세 개편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문화재열전



문수사 마애여래좌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유물, 불교조각, 불상
-지정일- 1999년 11월 19일
-시대- 고려시대
-소재지- 김제시 황산5길 158 (황산동)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윤관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裸木 / 신 경 립

나무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서서 하늘을 향해 길게 팔을 내뻗고 있다 밤이면 매마른 손끝 아름다운 별빛을 받아 드러낸 몸통에서 흙속에 박은 뿌리까지	그것으로 말끔히 씻어내려는 것이겠지 터진 살갗에 새겨진 고달픈 삶이나 뒤틀린 허리에 배인 구질구질한 나날이야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어 한밤에 내려 몸을 덮는 눈 따위	흔들어 시원스레 털어 다시 알몸이 되겠지만 알고 있을까 그들 때로 서로 부둥켜 안고 온몸을 떨며 깊은 울음을 터뜨릴 때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시인 약력 : 1936년 충북 충주 출생. 동국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55년 ‘낯달’, ‘갈대’, ‘석상’ 등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등단 후 한동안	생활 형편이 어려워 동네 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하며 끼니를 때웠다. 이후 ‘원격지’, ‘산음기행’, ‘시제’, ‘농무’ 등의 시를 발표했고 시학 해설서인 ‘신	경림의 시인을 찾아서’를 출간했다. 1973년 만해문학상, 1981년 한국문학작가상을 수상했다.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JBT

민을수있는 뉴~스!

전북의 중심에서!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063)282-9601

남원시, 제9회 글로벌 시니어춘향 선발대회 개최



“지구촌의 아름다운 신노년이며, 글로벌 시니어춘향 선발대회에서 청춘을 뽐내소서!”

글로벌에 숨어있는 시니어 팔방미인을 찾는 「글로벌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가 남원시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내달 30일 개최된다.

2016년부터 시작된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는 춘향제의 사전행사로 자리매김하여 주름이 아름다운 시니어 춘향미를 선발해 온바 특별히 올해 9회째를 맞으면서 색달라진 모습으로 우리 곁을 찾아올 예정이다. 글로벌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를 만나보자.

◆올해 9회째를 맞는 글로벌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 시작

남원시와 지역 내 어르신들과 함께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청춘의 꿈을 이뤄주고 있는 남원시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화사업을 고민하던 중, '남원' 하면 떠오르는 '춘향'에 착안, 지난 2016년부터 노년의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 여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춘향선발대회를 기획, 추진해왔다.

이로써, 매년 새롭게 도전하는 시니어 춘향이들은 팔색조의 매력을 펼쳐며 자아실현의 꿈을 이루는 기회를 갖게 됐고, 올해로 아홉 번째로 여성 시니어들의 다양한 노년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자리가 되고 있다.

◆새롭게 달라진 참가자격과 심사기준

그렇게 남원시와 전민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남원시노인복지관이 주관하는 「글로벌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는 올해 9회를 맞이하면서 본래 60세 이상(1965.4.30. 이전출생)의 여성들이 참가 대상이었던 것을 외국인 및 다문화 여성(55세 이상(1970.4.30. 이전출생)까지 대상자를 확대, 글로벌 행사로 발돋움시켰다.

이로써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물론 국적 불문 참여자 모두 하나로 융합되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또한, 서류심사 기준도 변경되어 추진된다. 내면의 미를 중요시하여 지역사회 공헌도인 수상경력, 봉사활동에 그동안 높은 배점을 부여했다면 올해부터는 자립 영역인 에세이 부분에 높은 배점을 주어 다양한 직업군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채롭고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참가신청 등 대회 진행 상황 및 선발 기준, 시상 등

이번 대회는 ▶참가 신청서 접수(2.17.(월) ~ 4.4.(금) 47일간) ▶예선(서류) 심사 4.7.(월), ▶심사 결과 개별 통보, ▶본선대회 4.30.(수) 순으로 진행된다.

며, 4월 7일 예선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자가 확정되고 대회 당일 자기소개와 자기자랑 등을 선보이며 그동안 숨겨왔던 어르신들의 끼와 재능을 맘껏 펼칠 예정이다.

예선 심사는 서류심사로 진행되며 공헌(지역사회 공헌), 청춘(나이, 노년기 사회활동 등), 자립(삶의 감동적인 이야기)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총 100점 만점으로 고득점자순으로 선정되며 동점일 경우 연장자를 합격자로 선정한다.

본선 심사는 에세이 점수와 현장심사를 합산하여 진행되며, 지혜(이미지, 순발력, 자기자랑), 존경(신노년문화를 이끄는 분)의 두 분야로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한 후 최고점을 우선 결정하며 예선심사와 마찬가지로 동점일 경우 연장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본선 진출자 16명 중 6명에게 본상이 수여되고, 대회 참여 과정에서 빛나는 우정을 과시한 1명에게 우정상의 영예가 주어진다. 한편, 본상을 수상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참가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대상(상금: 250만원/부상-공기청정기 1대), 금상(100만원), 은상(70만원), 동상(50만원), 특별상(50만원) 2명(전민일보, 전북일보), 우정상(공기청정기), 참가상(10만원)

◆내가 내 삶의 주인공임을 확인하는 '글로벌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

이렇듯 「글로벌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는 각자의 궤도는 다르지만, 시대적 흐름 속에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왔을 현시대의 시니어들이 주체적이고 생산적인 삶의 주인공이 되는 자리로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고 있어 매년 참가자들의 호응이 높다.

그뿐만 아니라, 예년 시니어 춘향 선발자들은 함께 숙박하며 본선 대회 준비를 돕고, 행사 진행에 안내 도우미를 자처하며 선배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수상자들은 대회 이후 1년 동안 남원시노인복지관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남원시 주관 각종 행사에 남원시를 대표하는 시니어 춘향으로 활동하고 있어 아름다운 신노년의 모습을 선도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글로벌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가 시니어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온 경험과 가치를 더욱 빛낼 수 있는 기회이다”라며, “세계 각국의 멋진 시니어 여성들도 많이 참가해 활기차고 주체적인 인생을 만들어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글로벌 시니어 춘향 선발대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남원시 노인복지관(063-625-998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제9회 글로벌 시니어춘향 선발대회

Senior Chunhyang 선발대회

깊이 있는 사색으로 나이를 먹지 않는다.

내 꿈은 시니어춘향!

참가대상 • 만60세 이상 여성 (외국인 여성 특전 부여)

신청기간 • 2025. 2. 17.(월) ~ 4. 4.(금)

신청방법 • 남원시노인복지관 홈페이지 참조

접수방법 • 우편접수(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금동로 50)

• 메일접수(unitas9988@hanmail.net)

• 방문접수

시상부문 • 대상 - 250만원 (부상:공기청정기)

• 금상 - 100만원

• 은상 - 70만원

• 동상 - 50만원

• 특별상 - 50만원

• 우정상

• 참가상

문의 • 063-625-9988 (남원시노인복지관)

2025. 4. 30. (수) 13:00~17:00

춘향문화예술회관

주최 남원시노인복지관 공동주최 남원시 전민일보

무주에 오면

특별한 맛과 즐거움이 기다립니다

MEORU GARDEN

머루와인동굴 MEORU WINE